

이슬람교의 역사

이슬람교 즉 무슬림의 종교는 주후 7세기에 무함마드(Muhammad, 570-632)에 의해 창시되었다.

무슬림: 무슬림은 '신에게 항복한 자'라는 뜻이고 이슬람은 항복이라는 뜻이다.

무함마드는 그의 삼촌에 의해 양육되었고 성장해서는 양을 치며 낙타를 모는 자가 되었다. 그는 25세에, 그의 여러 아내들 중 첫째 아내인 카디자라는 마흔 살의 부유한 과부와 결혼했고 그 뒤에는 명상과 기도 시간을 쏟았다. 그는 마흔 살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무함마드의 죽음까지 23년 동안에 걸쳐서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들을 구술해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계시들이 바로 이슬람교의 가장 거룩한 책인 꾸란(코란)이 되었다.

꾸란은 알라의 말들로 알려진 것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의 경전으로서 114장으로 나뉘어 있다.

분량은 신약성경의 3분의 2 정도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계시'라고 믿고 있다.

꾸란은 90장으로 된 메카의 계시(주로 설교와 대화)와 24장의 메디나의 계시로 나뉘는데 후자는 이슬람의 폭력성과 이에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정착한 10년 동안에 전쟁을 약 66번 치렀으며, 27번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무함마드의 시대에는 360개의 우상들이 들어서 있는 사원이 메카에 있었는데, 그 우상들 중의 하나가 수백 년 동안 무함마드가 속했던 부족의 최고신으로 인정받아 왔던 '알-일라'(Al-ilah) 즉 알라(Allah)였다.

(*) 알라는 월신(月神, Moon God)이었는데 이슬람교의 상징인 초승달의 기원은, 고대 바빌론과 노아의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도시국가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 월신은 아브라함이 성장한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 지역의 최고신이었고, 세바(Sheba)의 여왕의 출생지로서 남부 아라비아에 있었던 고대 세바의 최고신이기도 했다.

(*) (*) (*) 이슬람 달 심벌

무함마드는 알라가 단지 한 부족의 최고신이 아니라 유일한 참 신이며, 자신이 알라가 선택한 대언자(선지자)라는 계시들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무함마드의 계시들은 메카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622년에 메디나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헤지라(Hejrah)라고 부르며 이것이 공식적인 이슬람력의 시작이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많은 개종자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유대인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한참 후에야 비로소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다. 일단의 유대인들은 평화 회담을 약속한 거짓말에 속아 그들의 요새를 떠난 후 살해당했다. 그 뒤에 무함마드는 700명에서 900명에 달하는 모든 남자를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저들은 도랑을 따라 줄 세운 뒤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참수형을 집행하였다.

그 뒤 무함마드는 10,000명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격해 들어가 그 도시를 정복했다.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이냐, 아니면 천민 신분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선택이 주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하게 개종하는 편을 선택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비무슬림들이 메카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 무함마드는 강제로 비무슬림들을 개종시켜서 지즈야(Jizya)라는 보호세를 내게 만들었고 이것을 거부하면 죽이는 무슬림의 관례를 시작했다.

무함마드는 11-13명에 이르는 아내들과 많은 성 노예들을 두었다. 무함마드의 아내들 중에는 자신의 며느리도 포함되고 또 최초 개종자들 중 한 사람의 아홉 살 난 딸(아이샤)도 있었다.

주후 620년에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를 깨워 그를 날개 달린 말에게로 데려갔고, 무함마드는 그 말을 타고 예루살렘의 성전 산으로 갔다고 전해진다. 이 여정은 알-이스라(al-Isra) 여정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서 무함마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끌려 7개의 천국에 다다랐으며 거기서 아담, 요한, 예수님, 예녹, 아론, 모세, 아브라함을 만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매일 기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최초에는 하루에 50번씩 기도를 해야 했으나 나중에는 하루에 5번으로 줄었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주후 632년, 63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다.

이슬람 신앙의 5대 기둥: 기초와 뼈대

제1 기둥. 신앙고백(샤하다): “알라 이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이다.”

제2 기둥. 기도하기(살라): 하루 5번,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절하면서 기도. 기도는 일출 직전 새벽, 정오, 늦은 오후, 일몰 그리고 밤에 해야 하며, 기도문은 아랍어 꾸란에서 나온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3 기둥. 자선(자카트): 무슬림들은 자산의 2.5%, 교역품의 2.5%, 농업 생산의 5-10%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야 한다.

제4 기둥. 금식(사움): 라마단(이슬람력 9월)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와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식은 낮 시간 동안에만 시행한다. 밤에는 괜찮다.

제5 기둥. 메카 순례(하즈): 경제적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무슬림이라면 모두가 일생에 한 번은 행하는 것이 좋다.

샤리아법(이슬람 지배 규칙)

(*) ‘올바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샤리아 법은 두 개의 주된 출처인 꾸란과 순나에 근거한 것이다. 순나는 무함마드의 삶을 기준으로 한 격언들과 그의 삶에서 가져온 사례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혼에 관한 샤리아 법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는 최대한 네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

만약 너희들이 아내들의 위압적인 태도를 두려워한다면, [신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잠자리에 같이 하지 말 것이며, 그런 후 그들을 때려 주라(Sura 4:34).

남자들은 사춘기 이전의 소녀들과 결혼해도 좋다. (Sura 65:1, 4).

무함마드는 아이샤가 6살 때 그녀와 약혼을 했고 그녀가 9살이 되었을 때 부부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도는 오른손을 절단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무함마드나 꾸란을 비판하는 것은 사형으로 처벌한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무슬림은 사형에 처한다.

무슬림을 이슬람교로부터 배도시키는 비무슬림은 사형에 처한다.

무슬림 여자와 결혼하는 비무슬림은 사형에 처한다.

(*) 여자가 차를 운전하는 것은 피트나(Fitnah) 즉 소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여성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종교, 사람들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강간이 일어난다.

제주도민들의 가장 큰 우려

(*) 유럽, (*) 독일 (*) 스웨덴 (*) 영국 (*) 난민들의 대다수가 젊은 이슬람 남자들

(*) (*) 샤리아만 지키려 한다.

(*) 샤리아가 들어가면 생기는 일

종교의 자유, 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등권의 자유, 여성의 지위 박탈

(*) 예루살렘의 성전 산 위에 있는 바위 돔 사원(The Dome of the Rock Shrine)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아랍어로 쓰여 있다.

알라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꾸란은 16번에 걸쳐서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며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

(*) 잠언, 아들이 없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슬람의 목표

이슬람교의 목표는 알라를 위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주후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할 무렵에, 그는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이슬람교의 무력을 써서 자신의 지배하에 통일했고, 그의 신봉자들은 무함마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멀리 전진해 나갔다. 그로부터 200년 안에 이슬람교는 동쪽으로 중국과 인도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를 가로질러, 서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에 이르는 영토를 정복했다. 무슬림 군대는 사산 왕조(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비잔틴 제국, 그리고 서고트 제국을 정복하였고, 128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땅을 통치하는 칼리프 제국을 수립했다.

이 일은 칼날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대부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이 동반되었다.

칼로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창시 때부터 이슬람교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다.

왜?

종교는 경전이 있다. 신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경전에 따라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 것이다. 그 경전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품을 보여 준다.

(*)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꾸란은 알라를

이슬람교의 sword verses: 149개

(*) 꾸란 4:89, 5:33

(*) 9:5

2:191, 8:12, 9:29

기독교의 그리스도와 교리

(*) (*) 마5:43-45, 롬12:19-20

꾸란은 “그들이 책의 사람들(기독교인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알라의 종교가 온 세계에 군림할 때까지 그들과 전쟁하라”라고 말한다(Sura 2:193).

왜 이슬람이 득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시대에 배도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이교도 국가들을 일으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기독교를 심판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일으키셨다고 볼 수 있다.

바빌론 아시리아 모두 지금의 이슬람 세력

중세 기독교의 타락: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비잔틴 제국 전체와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진 채 기독교를 표방하는 유럽의 일부를 정복했다. 즉 사도들에 의해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존재했던 모든 지역이 배도했고 무슬림들에 의해 정복당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터키

(*) 중세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십자군 전쟁 등을 통해 세상을 무력 지배하려 함

자기의 믿음이 최고라고 믿는 것은 좋은 일

나도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슬람교의 테러리즘은 우리 시대의 배도한 기독교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심판이다.

이슬람교의 목표가 되는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명목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다.

유럽에서 이슬람교가 가장 많이 침투해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나라들이다.

배도한 러시아 정교회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에는 8,0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영국이 무슬림들에 의해 장악당하게 된 것이 놀랄 일일까?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무슬림 인구는 150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이것은 영국 인구의 거의 5%를 차지한다.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제1언어로 말하는 성인이 없는 가정에서 산다. 런던에서는 지금 ‘흰 피부의

영국인'이 소수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 무슬림 중 높은 비율이 소위 '온건한' 무슬림이 아니다.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비록 이스라엘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2000년이 흐른 시점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수립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 동성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고난의 배후에는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이슬람교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슬람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임이 분명하다.

이슬람교 혹은 그것의 부흥과 확산은 분명히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자신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의 발꿈치 밑에, 그리고 적들로부터 가해지는 지속적인 위협 속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결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재림의 징조 중 하나는 이슬람 확산이다. 전 세계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다시 강조한다.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경전으로 인해 많은 수의 무슬림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

오직 알라! 각종 테러

(* 우리의 전성기, 휴거

끝으로 예멘 난민 사태: 국경을 막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 보호가 가장 중요한 역할 곧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슬람교 바로 알기 책 소개

(* **살전 4장**